한국의 T-50 개발사업의 전망과 의미

Lockheed Martin Aeronautics T-50 마케팅 이사 Robie D. Notestine

한국은 KAI와 Lockheed Martin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T-50 [illegible] 항공산업 전반의 능력을 [illegible] 선진 항공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고등훈련기겸 경공격기인 T-50 골든이글은 신흥항공국과 세계적인 항공업체와의 성공적인 개발사업의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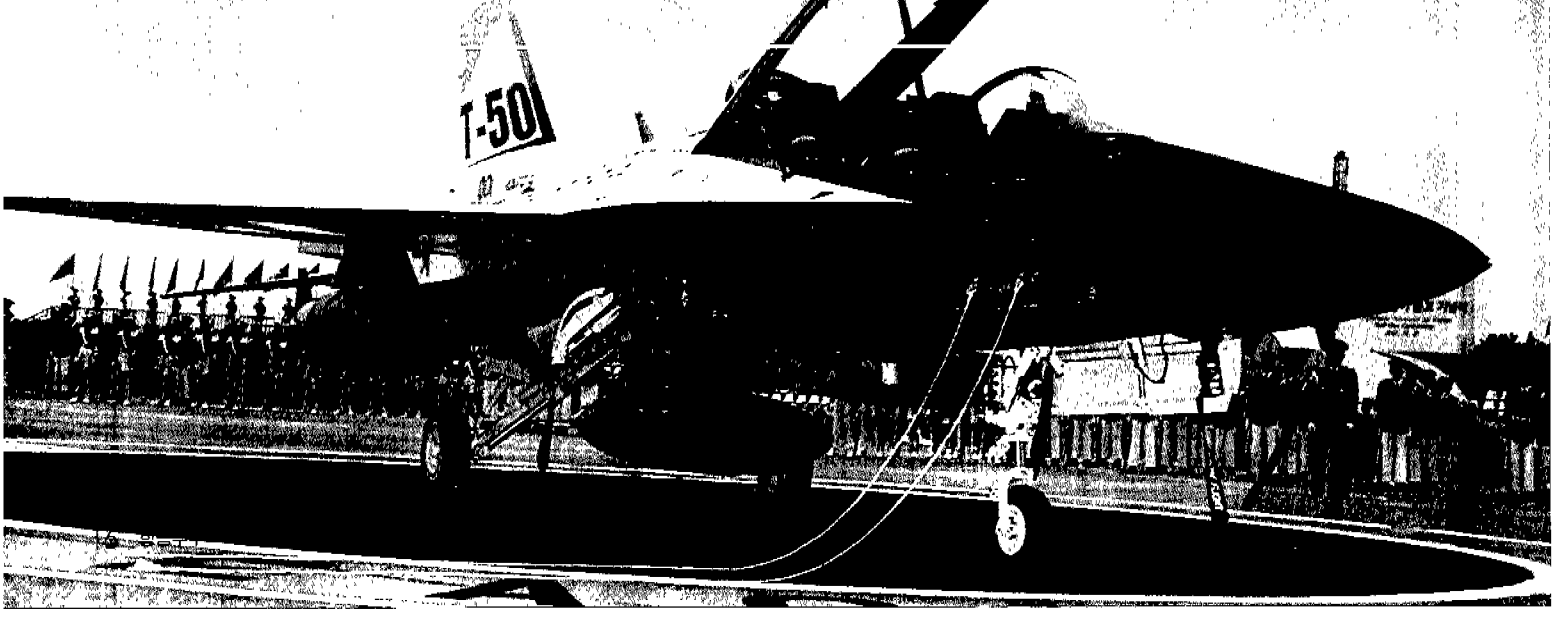
지난 20여년간 한국 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KAI가 항공분야의 국제적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Lockheed Martin은 T-50 등 일련의 사업을 통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KAI는 선진 항공산업체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고성능 군용기의 설계, 개발, 제작, 사업관리 및 국제마케팅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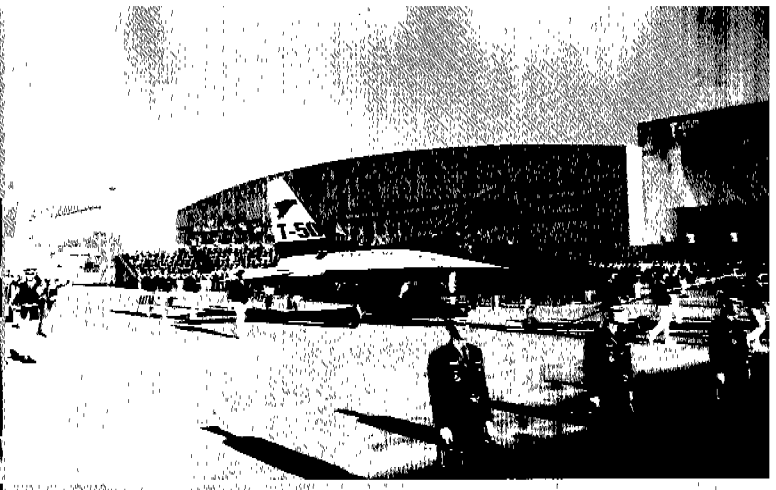
한국이 현대적인 항공산업을 보유하게 된 것은 KAI가 한국 공군용 KF-16을 생산하면서 부터이다. 1980년대 초반 한국 공군이 40대의 F-16을 도입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F-16의 부분품을 공동제작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삼성항공(현재 KAI로 통합)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으로 120대의 KF-16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천에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세웠다. 이 사업을 통하여 삼성은 미국의 Lockheed Martin이 제작한 초기 12대를 재조립하고, 2차분 36대는 직접 최종조립을 담당하였으며, 최종 72대는 한국내에서 부품을 국산화하여 완전히 면허생산을 수행하였다. KFP사업을 통하여 한국 항공산업계는 항공기 기체 구조물, 엔진, 항공전자장비 그리고 기타 부분품 등 현대적 군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KAI는 2001~2004년에 걸쳐 KFP-II사업으로 KF-16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면허생산할 계획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항공산업계는 KFP-I사업의 일부로서 Lockheed Martin의 지원하에 차세대 훈련기인 KTX-II의 개념연구를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KTX-II팀은 한국 정부에 KTX-II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1997년 체계개발(FSD)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후 KTX-II는 T-50으로 명명되었다.

KAI는 T-50의 주계약업체이며, Lockheed Martin Aeronautics는 주하청업자이자 기술협력선으로서 전반적인 기술지원, 항공전자장비체계, 비행제어체계, 그리고 주익에 대한 개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항공산업체)과 KAI는 T-50 체계개발사업을 통하여 광범위한 설계 및 개발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었으며, T-50 체계개발사업을 위하여 [illegible] 최첨단의 설계 및 개발시설을 구비하였다. KAI는 [illegible] 능력을 제고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CATIA, [illegible]OK과 같은 최신 컴퓨터 설계도구를 사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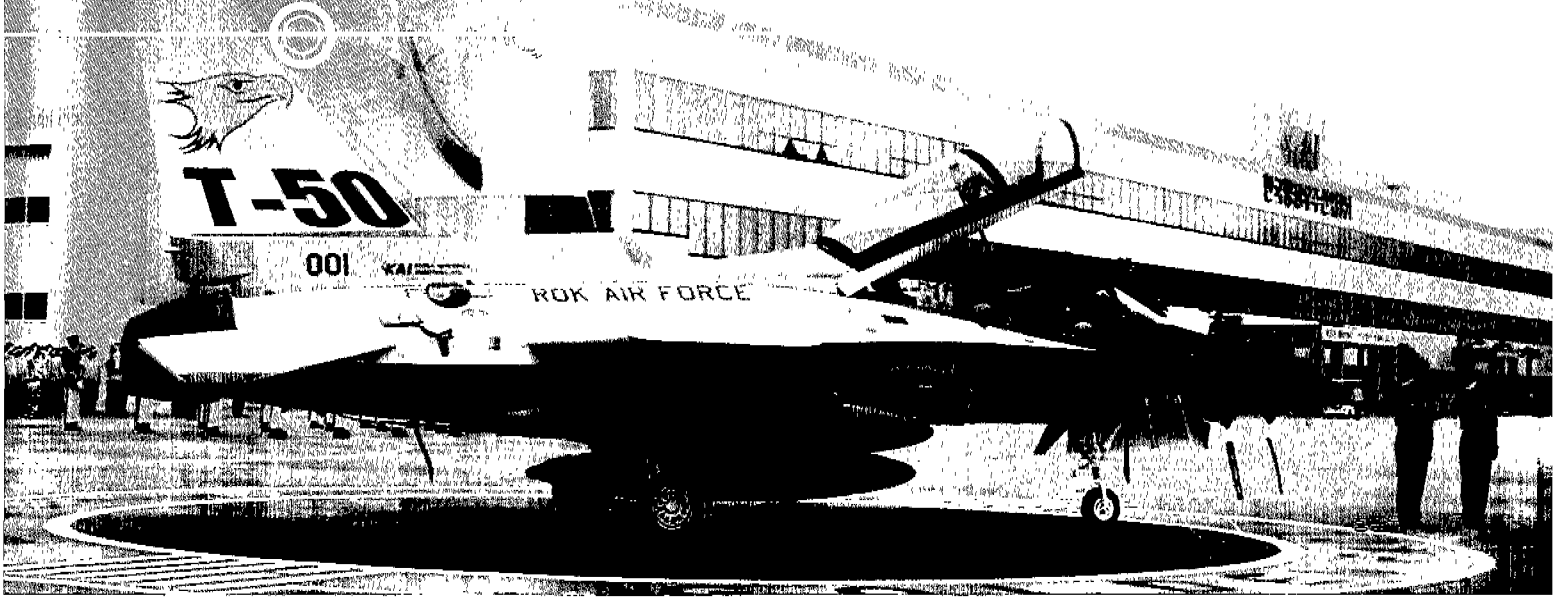




있으며, T-50 체계개발사업을 통하여 첨단 항공전자장비 및 비행제어 S/W에 대한 설계 및 개발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T-50 체계개발 비행시제기는 예정보다 100일 앞서서 2001년 9월에 완성되었고, 공식 출고식은 2001년 10월 31일 거행되었다. T-50 체계개발사업은 현재 지상시험 및 구조시험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비행시험은 2002년 6월 착수 예정인데, 이런 시험들은 개발능력상의 중요한 단계이며, KAI의 항공기 설계 및 개발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T-50팀은 광범위한 지상, 구조시험 및 비행시험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T-50 체계개발사업이 양산단계로 이전함에 따라 KAI와 한국 항공산업계는 독자적인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개념설계에서 양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T-50 양산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한국 항공산업계가 단순 생산(build to print)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완전한 능력을 갖춘 항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11월 KAI와 Lockheed Martin은 T-50/A-50(A-50은 골든이글의 lead in fighter 훈련기 및 경공격기 파생형)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한 공동마케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골든이글을 전세계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다. 또한 이 마케팅 협약을 통해 공동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T-50 International이라는 공동마케팅 조직을 신설하였다. 향후 30년간 T-50/A-50급 기종에 대한 전세계적 수요는 3,5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3,500대의 수요중 T-50이 800~1,000대 정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50사업은 현대적인 제트기를 개념 연구하여 양산까지 연계함으로써 고도의 항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막대한 기회를 한국에 제공할 것이며, 또한 고도의 기술인력 양성,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고용확대, 한국 항공산업의 세계 시장진출, 그리고 한국의 미래 국가방위를 위한 독자적인 항공산업의 육성 등의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Lockheed Martin과의 장기적 협력관계는 한국이 이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